

## D-TV 전송방식 변경논쟁,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최영훈  
한국전자산업진흥회 본부장

지상파 디지털TV 방송방식은 1997년 8월 KBS, MBC, SBS 등의 방송사 및 산·학·연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지상파디지털방송추진협의회』에서 경제적, 기술적, 서비스 측면(HDTV와의 연계, 이동수신 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청회를 통해 미국방식(ATSC) 채택을 결정하였다. 특히, 방송방식 결정에는 방송사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었고 당시 방송사들도 미국식을 선호하였다. 그리고, 정보통신부에서는 이를 토대로 『정보통신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1997년 11월 지상파 디지털TV의 방송방식을 확정하기에 이르렀다.

2001년 10월, 본 방송 시작 이후로 2003년까지 보급된 디지털TV 수상기만 해도 약 170만대에 이르고 있어,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자제품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제조업체들은 튼튼한 내수기반과 기술경쟁력으로 수출이 호황을 이루고 있으며 국가적으로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국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하지만, 방송계 및 사회 일각에서는 결정된 방송방식을 다시 유럽식으로 변경하자는 소모적인 논쟁을 장기화하고 있다. 유럽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동수신을 가장 큰 장점으로 부각시키고 있으며 고화질(HD) 방송도 동시에 가능하다고 하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현재 유럽에서의 이동수신은 SD급에 국한된 것이며 이 또한 막대한 투자와 많은 중간안테나 설치가 필요하다. 실제로 이동 중 TV수신 문제는 많은 송·중계소를 필요로 하는 등 경제성이 없어 유럽에서도 상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는 없다.

혹자는 독일과 호주에서 이동수신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DTV 해외실태조사단 방문에서도 확인됐듯이 독일의 경우에는 SD급으로 이동수신을 하고 있으며 호주의 경우에는 도심 일부지역에서만 이동수신이 이루어졌고 그 외 지역에서는 이동수신이 불가능하므로 호주에서 이동수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결국 『HD방송과 이동수신』을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동수신을 위해서는 거실이나 안방에서의 고화질(HD) TV 시청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동수신을 위해서 지상파 DMB를 활용하여 무료 이동수신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 따라서 지상파TV로 안방에서는 극장과 같은 느낌의 HD방송을, 지상파 DMB로는 현실적인 휴대수신을 제공받으므로 일거양득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시점에서 방송방식을 변경하게 된다면 산업계에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국내 디지털TV 제조업체는 거대한 미국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지금까지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투자로 경쟁국인 일본 업체와 1위 다툼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유명한 조사기관인 In-Stat/MDR 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디지털TV 세계시장규모의 50% 이상을 미국시장이 차지하였다. 즉, 미국시장을 선점한다는 것은 세계시장에서 확고한 1위를 차지하는 것이므로 국내 제조업체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디지털TV 수출수량(2003년)을 관련 제조업체로부터 집계한 결과 미국지역이 57%, 유럽은 28%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참고로 동 통계는 DTV 입출력 단자를 갖고 있으며 480p 이상의 해상도를 가지는 디지털TV를 기준으로 집계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산업계에서는 R&D, 생산설비, 마케팅 등에 7조원 이상 투자하였고, 방송방식 변경시 기회손실비용을 포함하여 13조4천억원 이라는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곧 일반 소비자 등 우리모두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 또한, 방식 변경에 따라 디지털TV 수상기의 원가 상승, 가격경쟁력 하락, 기술경쟁력 하락 등으로 인해 수출이 감소할 수 밖에 없으므로 세계시장에서 일본 업체들에 비해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이 상실되어 시장 선점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정부에서도 디지털TV 산업을 대표적인 차세대 10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하여 육성하려는 노력도 물거품이 되어, 이는 곧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게 된다.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Daum과 iNews24 등에서 디지털TV 방송방식 관련 온라인 투표를 한 결과에서도 일반 국민들의 60% 내외가 유럽방식보다는 미국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어느 방식이든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기 마련이며 단점은 기술발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불필요한 기술적인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기존 미국식을 유지하는 것이 사회·경제·산업적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리고, 이제는 무엇보다도 양질의 디지털TV방송 콘텐츠를 보다 많이 제작하여 방송하고 관련 부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고용창출 확대와 유망벤처기업 육성을 촉진하는 것이 소비자와 국가경제를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 될 것이다. ●